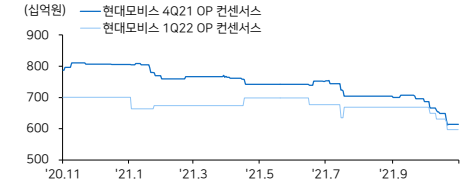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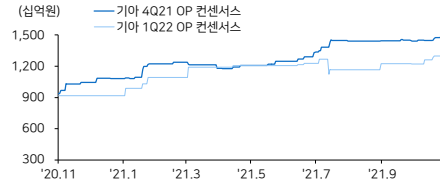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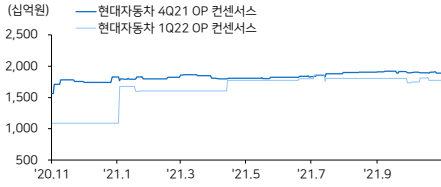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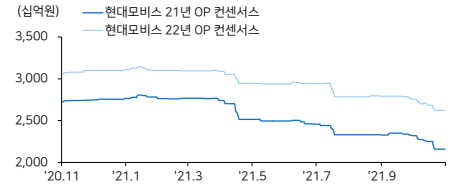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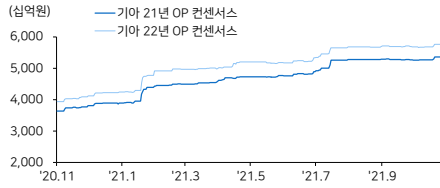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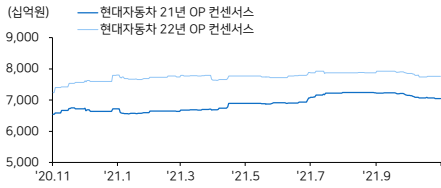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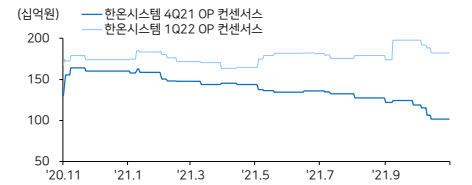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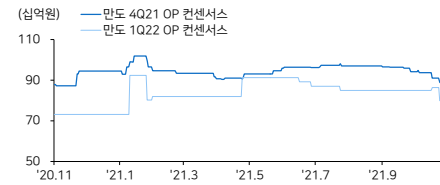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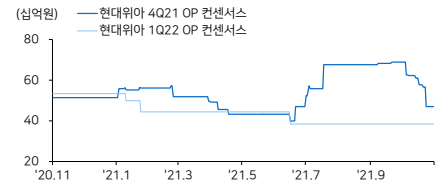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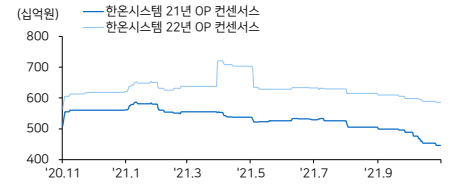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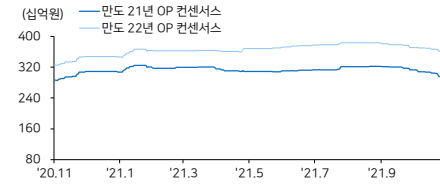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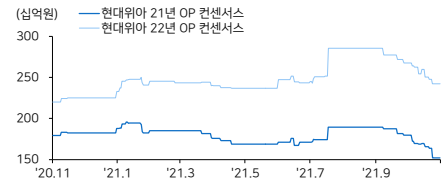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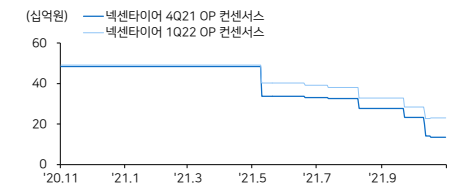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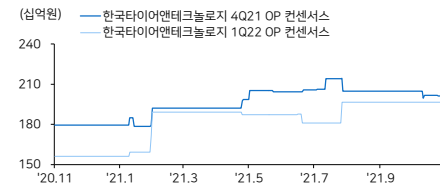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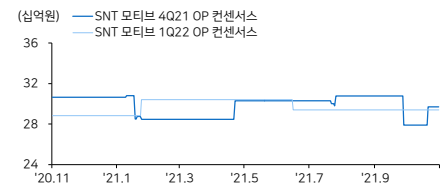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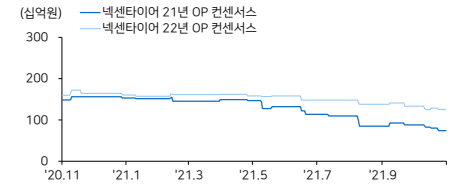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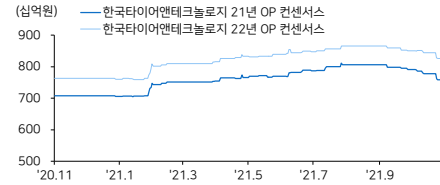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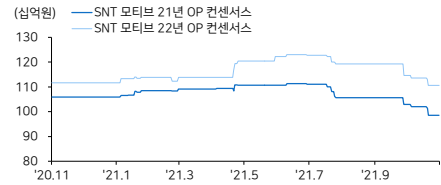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은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손 떼고 운전하는 '레벨 3' 자율주행 내년부터 양산 (조선비즈)

장흥준 현대차그룹 연구개발본부 자율주행사업부 상무는 1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HMG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내년에는 손을 놓고도 주행할 수 있는 레벨 3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술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bit.ly/3nOuBPA>

현대차 북미시장 "공급차질 최악 넘겨...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움" (연합뉴스)

호세 무뇨스 COO는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최악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고 말함. 또한 "미국에서는 8월이 가장 어려웠으며 9월과 현재 기준 생산계획에 가까워졌고 4분기 계획했던 생산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도 언급함. <https://bit.ly/3wZM17A>

현대차·기아, 미상무부에 마감 직전 반도체 자료 제출 (아시아경제)

현대차와 기아 미국 법인이 미국 정부가 요청한 반도체 공급망 관련 자료를 제출. 기아 조지아 법인은 동남아 ECU 공급차질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올해 생산계획 대비 생산이 8% 감소했다고 밝힘. <https://bit.ly/3qI9Hx>

美·中·日 다 빠진 '2040 내연차 생산 중단' 서약...현대차도 불참 (중앙일보)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국제사회의 서약에 토요타, 현대차, 기아, 폭스바겐 등이 불참. 포드, GM, 비아디, 님러 등 서약에 동참함. 국가 단위로 봤을 때 중국과 미국은 동참하지 않음. <https://bit.ly/3q6D6Gk>

현대차 '車·로봇·UAM·에너지 아우르는 디바이스 네트워크 개발' (파이낸셜뉴스)

HMG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현대차는 E-GMP, 수소연료전지, 고성능 N 브랜드, 커넥티드카, 로보틱스 등의 혁신 기술을 소개. 이어 자율주행, 연료전지 관련 기술 현황과 비전도 소개함. <https://bit.ly/3oidUyy>

지난달 인도서 팔린 SUV 3대 중 1대는 현대차·기아 (연합뉴스)

현대차·기아는 배뉴, 셀토스 등 소형 SUV를 내세워 지난달 인도 SUV 시장에서 3분의 1이 넘는 점유율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누적 점유율도 40% 상회를 전망함. 인도 SUV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점유율은 34.5%. <https://bit.ly/3odZoli>

美 10월 소비자물가 6.2% ↑... "30년만에 최고 상승률" (조선비즈)

10월 PPI가 yoy +8.6% 상승한 데 이어 CPI 역시 30년만에 최고치인 yoy +6.2%를 기록함. 자동차 소매 등의 가격이 올해 누적 점유율도 40% 상회를 이끌었으며, 휘발유 가격이 6.7% 증가하여 재화 가격 상승세를 견인함. <https://bit.ly/3ohUjR>

EV start-up Rivian is valued at \$86 billion after market debut, higher than Ford (CNBC)

리비안이 상장 첫날 시가총액 860억 달러로 마감. 이는 포드(770억 달러)를 넘어섰고 GM(860억 달러)과 비슷한 수준. 그러나 리비안의 3분기 매출은 100만 달러 수준이며 아직 대규모의 전기차 양산 계획은 불확실한 상황. <https://cnb.cx/31yW58>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